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급등 17.2%...이낙연·이재명과 '빅3'

이낙연·이재명 21.5% 공동 1위

범여·범야권 격차 16.6%p→10.2%p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대 후반으로 급상승하며 이낙연·이재명·윤석열의 '빅3'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끝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21.5%를 기록, 0.1%포인트 상승해 전월과 비슷한 선호비율을 보인 이재명 지사(21.5%)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6.7%포인트 상

승한 17.2%를 기록, 최고치를 갱신하며 3위를 이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9%, 홍준표 무소속 의원 4.7%, 오세훈 전 서울시장 3.6%,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3.3%, 추미애 법무부 장관 3.1%, 원희룡 제주지사 3.0%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김경수 경남지사 2.2%, 새로 포함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5%,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1.3%, 김부겸 전 민주당 의, 1.0% 순이었다. '기타인물'은 0.7%, '없음'은 6.1%, '모름/무응답'은 2.2%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대구·경북(TK), 인천·경기, 20대와 30대, 진보층, 무직과 학생,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호남과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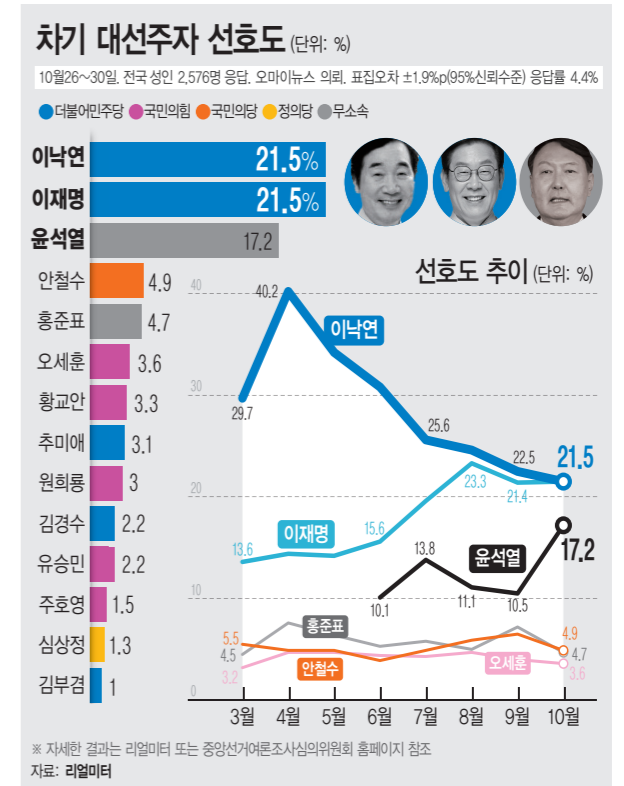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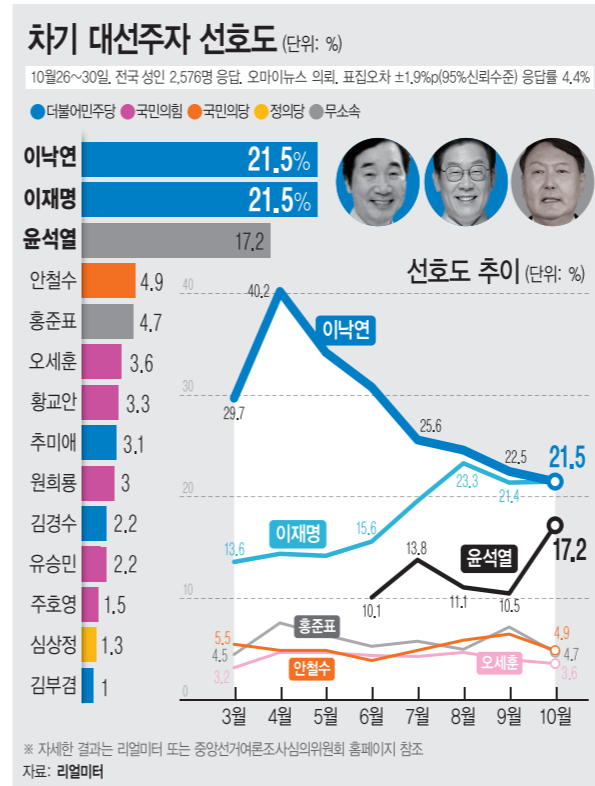
울, 보수층, 노동직과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

이 지사는 PK와 TK, 30대, 보수층, 가정주부와 학생에서 상승했고, 호남, 20대와 40대, 진보층, 노동직에서는 하락했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인천·경기와 PK, TK, 30대와 50대, 20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영업과 가정주부, 무직에서 주로 상승했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추미애·김경수·심상정·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2.1%포인트 내린 50.6%,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안철수·홍준표·오세훈·황교안·원희룡·유승민·주호영)은 4.3%포인트 오른 40.4%로, 양 진영 간 격차는 16.6%포인트에서 10.2%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만8906명에게 접촉해 최



중 2576명이 응답(응답률 4.4%)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스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당원 87% 압도적 찬성

'無공천 예외 조항' 찬반 투표...18만3509표 찬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총 투표수 21만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

는 13.36%였다.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이번 당헌 개정 투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투표(17만7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는데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건 재·보궐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의 처리 등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김종인, 오늘 두 번째 광주 방문...지자체장과 정책협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라 광주 방문하는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3일 '무류 사과'로 호남 끌어안기에 첫발을 내디뎠던 장소인 광주를 다시 찾는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이 11월3일 광주학생사건(광주학생독립운동) 날이기 때문에 광주에 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

들과 정책협의, 광주·전남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특별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5·18 명예훼손 처벌법 두 가지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권한, 범위 확대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사람에 대한 처

벌 조항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당원의 검토 여부에 대해 묻자 "역사 왜곡을 누가 하고 있나"라며 "5·18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모처에서 권영세·박진 의원과 김용태·나경원·이혜훈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서울지역 당 중진 정치인들과 막걸리 회동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들을 만나서 내년 보궐선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종인 "윤석열 野 여론조사 1위? 검찰개혁에 대한 반증"

"지금 여론조사로 일희일비하는 건 의미 없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6.7%포인트 상승한 17.2%로 야권에서 가장 높은 선호비율을 기록한 데 대해 "검찰개혁에 대

한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뉴스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윤 총장은 현재 여권에 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며 "국민들 생각에서 검찰개혁이니 하는 정부의 전

반적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반증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도 (윤 총장의 지지율은) 내가 보기에는 당분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